

예상 못한 ‘불수능’... 입시전문가들의 대입전략 조언

# 수시 커트라인 낮아질수도...포기하지 말라

“수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수시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술 등 향후 수시전형에 집중해야 합니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정시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 2학기 기말고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이재진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실장)

작년에 비해 어려워 ‘끓는물 수능’ 평가를 받는 2016학년도 수능능력시험 가채점 분석 후 이어진 입시업체 전문가들 조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13~15일 진행된 입시업체 6곳(대성학원·메가스터디·유웨이중앙·이투스청솔·종로학원·진학사) 대입설명회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업체 입시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대입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입시업체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

정시 정원수 감소

하향지원 불가피

기말고사도 잘 봐야

시전형에 집중하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수능 가채점 결과 수시 최저합격기준에 조금 미달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 공식 성적 발표 전으로 가채점 등급 커트라인이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 논술·면접 등 수시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설명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모집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추가등록 기간(12월 15~22일)이 8일간으로 작년에 비해 이를 늘려나 수시모집 최종 합격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2~5등급 중위권 학생들이 속단하지 말고 추가 기회를 노리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메가스터디에 따르면 고려대와 서울시



서울 서초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가채점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대학별 논술 대비 전략은?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

| 학교   | 계열 | 대비 전략                                         |
|------|----|-----------------------------------------------|
| 고려대  | 인문 | 제시문별 소주제 채점 항목이 ‘뚜렷’ 간결한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       |
|      | 자연 | 기출문제 체크하고 예상문제 꾸준히 풀어 첨삭을 통해 점검               |
| 중앙대  | 인문 | 세밀한 독해와 요약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반드시 출제                |
|      | 자연 | 수학·과학 분리 출제, 전년도 유형 변경으로 기출문제 부족해 타 대학 기출로 연습 |
| 이화여대 | 인문 | 수리는 단순 계산보다 논리적 사고를 영어는 정확한 독해보다 논지의 이해를      |
|      | 자연 | 수학 문항 4개 출제로 풀이 시간 부족할 수도, 시간 단축 염두에 두어       |
| 한국외대 | 인문 | 영어 제시문과 주어진 도표나 자료를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               |

립대가 각각 5차, 3차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 작년보다 한 차례 더 추가 합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본격화한 논술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언 역시 많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 교육과정이나 EBS 교재 내에서 평이하게 출제되고 짧은 제시문, 다수 논제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반드시 올해 모의논술과 전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첨삭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논술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기준 영향 등으로 지원율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

해 논술에 강하지 않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서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전체 경쟁률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부터 본격화하는 정시전형과 관련해서는 정원 수 감소에 따라 하향 지원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신 지원 등 자신만의 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이재진 진학사 실장은 “수능에서 변별력이 확보돼 상위권 학생들은 소신 지원, 중위권 학생들은 하향 지원 패턴을 주로 보일 것 같다”면서도 “많은 학생이 하향 지원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틈새

대학과 학과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기 소장은 “1~2등급대에서 수시 합격으로 인한 이탈률은 50% 가까이 달한다”며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우수자들이 대거 수시에 붙어 이탈하니 너무 하향 지원하지 말고 적정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학사에 따르면 정시 가군 전형이 지난해에 비해 7111명 줄며 가장 많이 감소해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의대 정원 증가로 합격선 변화가 예상되고 다군 경쟁률과 합격선이 오를 것 같다”며 “특성화 학과 선호도도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입시전문가들은 또한 곧 이어지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도 충실히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종서 이투스청솔 소장은 “수시에 붙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정시전략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 내신 대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를 제외한 입시업체 5곳은 이번 수능에 대해 특별히 문제 오류로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강봉진·박대의·김희래 기자

## 기출문제 제시문 꼼꼼하게 점검을

논술대비 어떻게

올해 대학수능능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예상치 못한 ‘불수능’에 곤욕을 치르는 듯하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정시전형보다 수시전형에 ‘올인’해 예상 성적보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별 수시 논술고사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아직 실천까지 여유가 있는 수험생이라면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를 통해 올해 논술 출제 경향을 보다 철저히 분석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올해 논술 트렌드와 어떤 주제로 출제될지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문계열, 기계적 서술은 감점...간결·정확한 정리 중요

자연계열, 장문의 문제속 풀이힌트 찾는 연습도 필요

종로학원하늘교육은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수능 직후 논술고사를 실시한 대학 수험생 118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대학들은 전년도 기출문제, 올해 배포된 모의논술과 큰 차이가 없는 제시문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험 시간·문항 수·제시문 수·문제 구성 등 기존 방식대로 출제했다. 따라서 시험을 앞둔 대학도 기존 출제 유형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고교 교육과

정에 있는 개념과 지문을 사용해 제시문으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계열 수험생은 주어진 제시문의 연관성을 고려해 되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비교해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서술은 피해야 하며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배경 지식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도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은 제시

문 중 하나를 영어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제시문의 난도가 높지 않고, 정확한 독해보다 주어진 논지를 이해하고 주어진 도표나 자료와 제시문을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해석보다 논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자연계열 논술은 학교에 따라서 수학 단독형·수학과과학 선택형·수학과과학 통합형·인문 혼합형 등 출제 형태가 다양해 지원한 학교의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시문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장문 제시문에는 문제 풀이와 관련된 개념과 힌트를 제시문 속에 숨겨놓는 경우가 있다. 계산형 문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풀이 시간이 부족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문항별로 시간을 측정하고 답안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박대의 기자